



“「직지」가 있었기에 우리가 존재한다”

한국EMC, 직지찾기 운동 발벗고 나서

정보저장 관련 다국적 기업 EMC 한국 지사(대표이사 정형문)의 직지찾기운동이 해를 더할수록 그 열기가 무르익고 있다.

2000년 9월 7일 청주시민회 직지찾기 운동본부와 공동협약을 맺고 직지찾기운동에 나선 한국 EMC의 직지 찾기 행보가 단발성 행사로 끝날 것이라는 우려를 잠식시키고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공동협약 첫째 한국EMC는 2000년 한가위 명절을 맞아 청주지역 귀성 차량을 대상으로 직지찾기운동에 대한 홍보물을 배포하는 것으로 한국EMC가 가지고 있는 직지찾기운동에 대한 열의를 표시했다.

청주에서 성공적인 행사를 마친 한국 EMC는 이후 9월 24일 이번엔 장소를 서울로 옮겨 다양한 직지찾기 홍보 캠페인을 벌였다.

인사동에서 행해진 행사에서는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직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 및 역사적 가치를 알리는 자료 전시와 '직지'를 식별할 수 있도록 '직지' 하권의 뒷면을 인쇄하여 배포하는 등 다양한 행사를 가졌다. 2001년 3월엔 한국EMC의 강력

한 요구로 EMC본사 홈페이지(www.emc.com)에 직지찾기 운동이 실렸다.

EMC는 전세계적으로 배포되고 있는 자사 이메일 뉴스레터의 머릿기사로 한국인들의 직지찾기운동에 대한 열의를 보도했다.

EMC 본사 웹사이트는 “최초의 인쇄술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독일의 구텐베르크가 1445년경 최초로 금속 활자를 발명했다는 주장이 일반적으로 이해되고 있지만 여기 또 다른 주장이 있다. 지구를 반 바퀴 돌아 저편에서, 구텐베르

◆ 인사동에서 열린 직지찾기 홍보 캠페인동안 직지 하권 마지막장을 즉석에서 인쇄해 나누어 주었다.





◆ 한국 EMC직원과 가족들로 구성된 마라톤 동호회 '직지를 찾는 사람들' 결성식 장면.

그가 금속활자를 발명하기 70년 전에 한권의 책이 이미 인쇄됐던 것이다. '직지심체요절', 불교의 참고 문헌이 담긴 이 책은 1377년 한국 청주의 한 사찰에서 인쇄되었다"고 소개했다.

EMC 본사의 이같은 보도는 직지가 한국인의 관심을 넘어 세계인들의 관심을 가지는 계기가 되었다. 2001년에도 한국 EMC의 직지찾기운동은 계속됐다.

이번엔 대학생직지동호회가 결성됐다. 한달 동안 공모기간을 거쳐 5월 10일 결성된 동호회는 젊은이들의 열기로 가득했고, 한국EMC는 이들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6월에는 2000년 9월에 이어 또 한번의 대국민 홍보캠페인의 일환으로 인사동에서 전통문화행사를 가졌다.

이 날 직지찾기 거리 문화행사는 타악 공연단인 '도깨비 스톱' 팀의 '직지'를 주제로 한 길놀이 공연을 시작으로 '직지' 동판을 이용한 고문서 인쇄 시연과 직지찾기 도깨비 공연, 판소리 명창 나태욱씨의 흥부가 중 '박타는 대목' 판소리 공연 등으로 진행되었다. 또한 새로이 결성된 대학생 동호회 회원들은 이날 '직지' 관련 홍보책자를 시민들에게 나눠주며 캠페인 활동에 동참했다.

'직지를 찾는 사람들'이란 사내 마라톤 동호회도 생겨났다.

59명의 직원이 참가한 마라톤 동호회

는 노익장을 과시하는 한만성 부사장(61세)부터 기술지원부 육훈수 차장의 아들 육근재(8세)군까지 다양한 연령대는 물론 회사 거의 모든 부서의 직원들이 동참했다.

영업부 은희진 이사는 "마라톤은 경쟁을 떠나 함께 하는 공존의 정신을 필요로 하는 스포츠이다. 내 가족과 함께 함은 물론이고, 회사 가족들과의 협동, 더 나아가서 같은 시민과 함께 호흡하면서 즐길 수 있는 게 바로 마라톤이다. 여기에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 '직지'를 찾기 위한 뜻깊은 의미가 더해진다면 더할 나위가 없을 것 같아서 기꺼이 '직지를 찾는 사람들' 동호회에 참여했다."고 말했다.

한국EMC가 이처럼 '직지' 찾기에 발 벗고 나선 이유는 회사 존립근거를 '직지'에서 찾고 있기 때문이다.

정형문 사장은 "기록 없는 정보란 있을 수 없다. 무한히 생성되는 정보는 보존되고, 함께 공유될 때에만 그 가치가 있다."라고 강조하면서 " '직지'가 있음으로 해서 오늘날 우리가 필요한 이 모든 정보가 있을 수 있었고, 그 정보를 저장, 보호, 관리하는 정보 인프라를 제공하는 EMC와 같은 기업이 존재할 수 있는 것이다"라며 말하고 "직지를 찾는 그날까지 '직지'를 찾기 위한 한국EMC의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G

〈이용우 기자〉